



## 북한의

# 축산동향



자인배 전문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

### I. 북한의 농업현황

북한은 1980년대 이후 합영사업과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 등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대외 경제제재와 계속되는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 매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96년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한 자연재해는 농업부문에 큰 타격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리는 이 시기는 북한에 식량위기를 초래하여 많은 아사자를 만들었으며, 식량문제는 지금도 북한경제의 가장 큰 당면문제로 남아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은 계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약간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사정과 식량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시기 북한의 농업이 자연재해로 인해 크게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그동안의 농업정책이 토지의 외연적 확대에 바탕을 둔 농업생산증대정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산지가 많아 자연적으로 농업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식량자급이 필수적이었으며, 식량자급 달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토지를 넓히는 방법이 가장 쉬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1970~80년대 개간과 간척, 다락밭 건설 등 농지의 외연적 확장에 농업정책을 집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지확장정책은 1990년대 중반의 연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토지가 크게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농업생산에 큰 타격을 주었다.

북한은 무리한 농지확장정책이 자연재해로 이어지자 1998년부터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농지를 확장하는 대신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으

## 북한의 축산동향

로 전환하였다.

즉, 농업생산의 증대와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이모작)혁명방침을 세워 추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관개수로 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은 초식가축을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농업혁명방침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은 크게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경제악화로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생산시설이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어 이들 농자재의 자체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트랙터를 비롯한 상당한 수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류와 부품의 부족으로 농기계의 가동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원하는 농자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작업이 인력으로 이루어져 농업생산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북한의 농업생산성은 남한의 1/3 수준이며, 유통, 저장시설의 미비로 수확 후의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농업 관리제도와 분배방식, 노동의욕 저하, 주요 생산수단의 집체 또는 국가 소유제도는 농업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농업의 심각한 피해로 인해 식량위기를 겪은 이후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농업 생산은 쉽사리 증대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식량생산량은 약 400만톤이었지만 “고난의 행군” 기간이던 1998년에는 270만톤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2003년에야 다시 1990년대의 중반 수준으로 겨우 회복되었다(〈표 1〉).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감자를 포함한 2003/04 양곡연도의 예상 식량생산량을 416만톤으로 추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식량 소요량을 아무리 낮게 추정하더라도 연간 500만톤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640만톤의 식량이 소요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연간 200만톤 이상의 식량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1> 1995~2004년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

(단위: 천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01	2001/02	2002/03	2003/04
국내공급량	4,077	2,995	2,663	3,481	3,420	2,920	3,656	3,840	4,156
생산량	4,077	2,837	2,663	3,481	3,420	2,920	3,656	3,840	4,156
이월량	n.a.	158	n.a.	n.a.	n.a.	n.a.	n.a.	n.a.	n.a.
소요량	5,988	5,359	4,614	4,835	4,751	4,785	4,957	4,921	5,100
식용	3,688	3,798	3,874	3,925	3,814	3,871	3,855	3,893	3,944
사료용	1,400	600	300	300	300	300	300	178	178
기타	900	961	440	610	637	614	802	851	748
부족량	1,911	2,364	1,951	1,354	1,331	1,865	1,301	1,084	944
상업적수입량	700	500	700	300	210	200	100	100	100
원조량	630	660	760	840	586	1,100	819	300	440
절대부족량	581	1,204	491	214	535	565	382	684	404

주: 2003/04 생산량에는 텃밭에서 생산하는 50,000톤 정도의 곡물을 포함함.

자료: FAO/WFP, Special Report : FAO/WFP Crop And Food Supply Assessment Mission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996-2003(각 연도).

## II. 북한의 축산동향

북한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7차 회의( '63.9.9)의 결정에 따라 축산물 생산의 전문화를 목표로 국영축산(국영농목장), 협동축산(협동농장), 농민부업축산(농가)의 3원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영축산은 총경지면적의 12%, 축산물 생산의 20% 이상을 점유하였으며 지역별 기후조건에 적합한 축종을 선택하여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전문화 사육방식을 도입하였고, 협동축산은 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별로 전문화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축종으로 축산분조를 운영하고 있다.

농민부업축산은 그 우월성이 인정되어 1961년부터 장려사육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71년부터는 협동농장, 농가, 학교 등에서 닭, 오리, 토끼, 염소, 양 등 일정수의 가축을 의무적으로 사육하도록 하고, 특히 가축사육 증대를 위해 이들 가축을 주민들이 농

## 북한의 축산동향

민시장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업축산을 장려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3원 축산체계가 확립되면서 연도별 축산물 생산목표를 제시하는 한편 현대적인 배합사료 시설을 설치하여 사료공급에 주력하였고, 돼지공장, 닭공장, 오리공장 등이 설립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존의 축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영농목장의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정책적인 의무사육제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악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식량과 사료곡물의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이는 결국 농후사료를 주먹이로 하는 소와 돼지 등의 가축사육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특히 협동농장과 농민부업 축산에 의한 가축사육 두수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가축사육의 감소는 북한의 육류 공급의 주축을 이루던 국가배급망(Public Distribution System)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1년 평균 육류소비량은 1kg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식량난과 사료부족으로 급속히 와해된 축산업을 진흥시키고자 1996년부터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초지조성 및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발전 전략을 제시한 이후 계속적으로 초식가축 위주의 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사료부족으로 농가와 협동농장의 가축사육 두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곡물사료가 거의 필요없고 손쉽게 기를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염소, 토끼 등 초식가축의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지조성과 초식가축 기르기를 전당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 하도록 하고 자연초지를 중심으로 한 초지조성, 풀씨채종체계 수립, 국영농목장과 협동 경리의 공동축산을 위주로 하면서도 농장원들과 노동자, 사무원들의 개인부업축산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축산동향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를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다.

북한의 가축사육두수는 북한경제가 나빠지기 전인 1990년을 전후로 최고를 기록하다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 1997년을 전후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뒤 서서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7년 이후의 가축사육동향은 초식가축 중심의 축산업 진흥정책에 따라 곡물 사료에 의존하는 소, 돼지 등의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 혹은 감소한 반면, 초식가축의 사

<표 2> 북한의 가족 사육두수 증가 추이

(단위: 천두)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소	950	1,100	1,000	886	615	545	565	577	579	570	575	576
젖소	-	-	-	-	-	-	-	-	-	9	9	-
돼지	4,200	4,800	5,800	2,674	2,674	1,859	2,475	2,970	3,120	3,137	3,152	3,178
양	290	350	500	260	248	160	165	185	185	189	170	171
염소	490	600	650	712	712	1,077	1,508	1,900	2,276	2,566	2,693	2,717
토끼	-	-	-	-	3,056	2,740	2,795	5,202	11,475	19,455	19,482	19,576
닭	17,950	18,450	21,000	8,871	9,425	7,904	9,427	11,200	15,733	16,894	18,506	19,958
오리	2,000	2,400	3,000	1,098	1,098	822	1,372	1,624	2,078	3,158	4,189	4,613
거위	-	-	-	-	554	357	462	829	889	1,090	1,247	1,247

자료: <http://faostat.fao.org/>

육두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인 1990년을 전후로 소 사육두수는 100만두를 약간 상회하였으나 1997년에는 54만5천두까지 감소하였다가 최근까지 57만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는 1990년에 580만두 이었던 것이 1997년에는 185만9천두까지 감소하였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300만두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1997년부터 중점적으로 사육을 확대하고 있는 염소와 토끼 사육두수는 1996년에 각각 71만2천두, 3,005만6천두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6.4, 3.8배로 늘어난 271만7천두와 1,957만6천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Ⅲ. 북한축산의 향후 전망

북한의 농업정책의 핵심은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 이모작혁명, 초식가축 사육증대, 토지정리사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정책은 과거 농지확장정책에서 생산성향상정책으로 전환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당분간 계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안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대부분의 체제전환국

## 북한의 축산동향

이 그랬던 것처럼 외교적·정치적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경제발전을 토대로 공산품 수출을 늘리고 부족한 식량을 수입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정권붕괴에 대한 우려로 대외 개방을 꺼려하는 북한으로서는 단기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체제가 현재와 같이 외부세계와의 교류를 억제하는 한 식량자금을 위한 정책들은 북한 자체내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식량수입량이 연간 약 10만톤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수요의 상당부분을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어려운 식량수급상황은 사료곡물과 육류의 생산과 함께 수입에도 상당한 제한을 주고 있으며, 결국 북한의 축산업은 농후사료가 아닌 조사료에 의지하는 초식가축사육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소의 경우 도축을 위한 사육보다는 축력을 이용하기 위한 사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북한은 부족한 육류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대체가축으로 염소와 토끼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염소는 염소젖을 생산할 수 있어 우유, 요쿠르트, 치즈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토끼와 같이 일반 가정에서 사료 없이 손쉽게 사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계속해서 사육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축산정책은 염소와 토끼를 중심으로 하는 초식가축 위주의 정책으로 나갈 것이고 앞으로도 염소와 토끼의 사육두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의 경제와 농업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면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의 수도 함께 증가할 테지만 그 증가수준은 1990년 전후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축산기지들과 개건현대화된 닭공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축산의 현대화는 어쩔 수 없는 대세이다.

하지만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모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결국 북한의 농업과 축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제회생을 통해 농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⑤